| 현불 논단 |

불교계 Me too운동, 이제 시작이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

천주교 신부 성추행 고발로
미투 운동, 종교계 확산 조짐
이는 불교도 다를 바가 없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젠더가 매개화된 폭력이지만
종교계 성폭력은 층위가 다양

범계, 종법 · 계율 엄히 적용 처벌
자기 자신도 가해자 · 방관자 였나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폭로 이후 성폭력 고발이 문화계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더니, 급기야 종교계까지 이어졌다. 정의구현사제단에 소속된 천주교 수원교구의 유명한 한 신부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가 이해를 좀 해달라' 며 선교활동을 함께 하던 외국에서, 함께 자원봉사를 하던 여성 신자를 성폭력하려 했단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다른 신부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7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최근 미투(Me too)운동을 접하면서 용기를 냈다고 한다.

어렵게 말을 꺼낸 피해 여성 신도는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 신부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또한 침묵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거라며, 교구 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함께 신부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성직자에 의한 여성신자 성폭력의 심각성은 비단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불교도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젠더(남성 vs 여성)가 매개된 폭력으로, '감히 여자가' 라고는 말하지만 '감히 남자가' 라고는 말하지 않는 이치이다. 그런데 성직자의 여성신도 성폭력은 젠더뿐만 아니라 신분, 연령, 직위 등 다층적인 억압장치들이 매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별 위계가 신분위계와 연결되어 여성을 차별하는 현실은 조계종단에서도 볼 수 있다. 조계종단은 총무원장은 물론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종단의 지도자는 능력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비구' 여야 하고, 여성 신도는 사찰 내에서 공양간 봉사자나 시주자로 역할을 한다.

또한 종단 관련 단체에서 비구 스님과 여성 신도는 직장상사와 여직원이라는 업무상 위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지도법사와 신도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처럼 성별 권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계가 종횡으로 얽혀있는 속에서 성폭력에 노출되면, 피해여성이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설령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가해자는 권력과 지위를 동원해서 사실을 부정, 은폐 혹은 축소하거나, 피해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불교계 출가자의 성폭력은 가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찰이라는 수행공동체를 파괴하고,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불법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계율과 종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종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출가자는 바라이죄와 승잔죄 등의 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성범죄자는 결코 종단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또한 불교시민사회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피해자가 미투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미투운동에 동참하는 피해자가 왜 불교계는 나오지 않느냐고 묻기보다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지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개별 불교신자들은 교단 내 성폭력에 대해 자신이 동조자이자 방관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혹시 모임에서 성희롱 발언을 못들은 척 한 것은 아닌지, 성추행을 장난이나 놀이로 한 것은 아닌지, 여성 비하 발언을 재미있다며 유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성평등한 붓다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불교계 성폭력과 관련하여 미투(me too)라고 하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社說

패럴림픽 행사 명칭 논란에 부쳐

대한민국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폐막하고 패럴림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는 패럴림픽 기간에 관광객들이 한류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을 개최한다고 밝혀 한 차례 찬물을 끼얹었다.

크리스마스(christmas)가 무슨 뜻이던가. 그리스도(Christ)와 미사(mass)의 합성어인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정치 ·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련 행사에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주최 측이 이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하면서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타종교인들에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겨울과 축제의 이미지를 갖는다는 인식은 종교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다종교 서구사회는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홀리데이' 를 사용하는 추세다. 이는 타종교를 위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세심하게 단어를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가 무슬림 관광객과 올림픽 선수들을 위해 강릉에 무슬림 이동 기도실을 설치하려다 보수 개신교 항의로 무산된 것처럼, 특정 종교의 청탁과 압력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종교화합은 분명 각 종교들이 나서서 이뤄야하는 과제이지만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자체와 기관에서의 종교중립이 뒷받침돼야 한다.

불자지성인, 평화의길 밝혀주길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北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교수불자대회와 북 사찰순례, 북한 문화재 조사 등 남북불교교류를 추진한다.

불자 지성인들의 결집체인 교불련은 1988년 창립된 이후 10주년인 1998년에는 IMF 국난 극복을 위한 자비실천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2008년에는 세계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계와의 소통을 주도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다시금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번 교불련의 공동사업 추진은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북핵 개발로 인한 갈등국면에서 현실화가 어려워보였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며 급물살을 탔다. 교불련 측이 2월 7일과 13일 제안 서한을 보내자 역시 두차례에 걸쳐 조불련 측이 화답한 것이다.

조불련 측은 서한을 통해 남북 교류의 핵심 창구로 교수불자연합회와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교불련과 조불련의 서한 교류에도 남북 불교계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북한 사찰의 보존 실태 조사와 문화재 조사, 성지순례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 인도적 지원과 대화 채널 확보 등이 그 것이다. 남과 북이 평화의 길을 가는데 불교계가 앞장서야 함은 불교 정신에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불교계의 교류는 스님들이 주축이 됐다는 점에서 교수들의 활동은 고무적이다. 재가불자 차원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다른 신도 재가단체의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

학문 연구와 교육의 본업 외에도 교수란 직책은 지성인,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 불자교수들의 활발한 대사회적인 행보를 기대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日미술관 정원 장식물된 韓 성보들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작가 모임 나우회 회원들의 도쿄국립박물관 답사 여행을 동행 취재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오쿠라 콜렉션과 불교미술' 을 주제로 열리는 재현전 준비를 위해서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 4층 조선미술실의 '오쿠라 콜렉션' 을 관람했다.

도쿄국립박물관 답사를 마치고 회원들과 찾은 곳은 도쿄 미나토구에 소재한 네즈 미술관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반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네즈 미술관 소장 운흥사 동종을 실견하고 싶기도 했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잘 정돈된 정원들 들어서니 당혹감이 우선 들었다. 누가 봐도 한국에서 건너왔을 석탑, 부도, 석등, 석주, 문인석, 석조 동자상들이 정원 장식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문인석과 석주, 석조 동자상에는 한국에서 건너왔다는 표지가 붙어있었지만, 길켠에 있던 석탑, 부도 등 다수의 한국 불교 성보들은 그런 표지마저 없었다.

찬찬히 한국 추정 성보들을 살펴봤다. 본래 자리에서 뜯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복원될 리가 만무했다. 조합이 맞지 않았고, 접합부 사이가 들뜬 것들이 발견됐다. 또한, 옥개석을 뒤집고, 그 위에 범어가 새겨진 옥신을 놓는 창작성(?)을 발휘한 조형물도 있었다.

앞선 '오쿠라 콜렉션' 은 해외 반출 문화재의 대명사로,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에서 살았던 일본의 실업가 오쿠라 다케노스케가 한반도 등에서 도굴하거나 수집해 간 문화재 1,856점을 통칭한다. 그는 1921년부터 한반도의 문화재를 수집했으며, 전후 이를 일본으로 가져갔다.

네즈 미술관의 설립자 네즈 가이치로우는 정치가 겸 실업가로 도부(東武)철도를 만든 인물이다. 고미술애호가라는 고상한 칭호도 있었던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순천 일대의 철도 부설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쿠라와 네즈,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부자 실업가다. 오쿠라는 대구에서 전기회사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네즈도 철도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들에게 문화재 수집은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행위였을지 모르겠다. 일본 제국주의 신민으로서 특유의 정복욕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역사 안에서 서로 공물을 주고 받으며 교류형태로 넘어간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일본 천왕가의 보물창고인 정창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도리어 한일교류사 연구를 위해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쿠라와 네즈의 경우에는 다르다. 멀쩡했던 석탑과 석등을 해체하고 무덤의 문인석, 석주를 가져다가 자신의 집 정원 장식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를 정당한 수집 행위라고 봐야 할까. 도쿄 유명 미술관 정원에 덩그러이 서 있는 이름 모를 한국 석탑과 부도가 계속 눈에 밟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신화불사
■ 25평 요사채. 팔작지붕. 육송재목 상태좋음. 기와포함. 4천만원
■ 전통한옥 철거, 매입 매매.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조각.
■ 60평 법당, 요사채 (2층 가능) 상태 A급, 맞배지붕, 저렴함.
■ 7층 석탑 (500~3,000만원) 다수 있습니다.
■ 수익형 기도처 양도가 21억원 (서울) 2억 (보증금) 월 1,000만원.
■ 사찰부지 4,800평 (포천) 양도가 15억, 다수의 석물 있음.
■ 38평 제실 상태 A급. 가격 매우 저렴.
010-6545-2020
그외 다수의 매물 있습니다

탈종공고
• 사 찰 명 : 봉덕사
• 주 지 : 봉천 (김병술)
• 승적번호 : 2009-27
• 주 소 : 경북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104-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